

한국의 長期 貿易統計와 貿易指數(1877~1963)*

朴基炷**·金洛年***

논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의 개항 이후 1963년에 이르는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정비하고 무역지수를 추계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통계 작성기관의 변천에 따라 달라진 통계작성 기준을 통일하고 무역 품목마다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코드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UN의 Comtrade DB와 접속함으로써 통계 DB를 2006년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피셔 연쇄 방식의 수출입 단가지수와 물량지수 및 교역조건을 작성하고 그것을 한국은행이 발표한 무역지수와 연결하였다. 이상의 작업에 기초하여, 개항 이후 현재까지의 130년을 개항기, 식민지기, 해방 후 1960년대 초, 1960년대 중엽 이후의 네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의 무역구성과 무역지수의 추이와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개항기와 식민지기를 통해 무역품의 유별 구성은 다양해지고 집중도가 낮아졌다. 개방체제가 후퇴한 해방 후의 십 수년을 제외하면 한국 무역의 빠른 성장은 개항 이후 지속되어 온 특징이었다. 순 상품교역조건은 시기에 따라 개선 또는 악화되기도 하였지만, 수출 물량의 빠른 증대로 인해 대부분의 시기에 소득 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핵심 주제어: 무역통계, 무역구성, 무역단가지수, 교역조건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N7, F1

투고 일자: 2009. 4. 24. 심사 및 수정 일자: 2009. 7. 28. 게재 확정 일자: 2009. 9. 18.

* 이 논문은 2009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 감사드린다.

** 제1저자,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전임강사, e-mail: kjpark@sungshin.ac.kr

*** 제2저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nnkim@dongguk.edu

I. 머리말

본 논문의 과제는 조선¹⁾의 개항(1876년) 이후 1963년에 이르는 장기무역통계를 정비하고, 무역지수를 추계하려는 것이다. 1964년 이후는 세관국의 『무역통계연보』와 같은 체계적인 통계서가 발행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무역지수와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의 무역 데이터베이스(이하 DB)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과제가 수행되면 우리나라의 무역지수에 관해 지난 130년간에 걸친 장기계열을 얻을 수 있게 된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에 무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무역의 빠른 성장은 비단 이 시기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고 후술하듯이 조선의 개항이나 식민지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개항은 조선 후기 전통적인 폐쇄경제가 열강이 강요한 불평등조약에 의해 개방체제(open economy)로 전환된 계기였다. 당초 무관세로 출발하였다가 5% 정도의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것에 그쳤으며, 무역 거래에는 개항장에 유입된 외국의 통화(은화)가 사용되고 있었다. 일제의 한국 합병으로 한국경제는 일본제국 경제권에 완전히 통합되었다. 두 지역간의 관세는 거의 사라졌고, 한국의 통화도 円系 통화로 대체되면서 그것과 同價인 일본은행권이 무역 거래를 위한 통화로 되었다. 식민지가 종주국 경제에 편입되는 형태로 지역통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해방으로 식민지체제가 붕괴된 이후 1960년대 초까지는 무역과 외환이 관리되는 체제로 바뀌었고, 국내시장의 보호 하에 수입대체 공업화가 추구되었다. 박정희 체제 이후는 다시 개방체제로 전환되고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음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다.

한국경제의 지난 130년간을 무역에 초점을 맞추어 돌이켜 보면 이와 같이 네 번의 상이한 시기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는 외부에서 강요된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근대사는 다양한 무역체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무역통계는 모든 시기에 걸쳐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경제통계이며, 이를 이용하여 각 시기에 무역을 포함한 경제적 성과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구명하는 일은 흥

1) 개항부터 현재까지 공식적인 국가명칭에는 변화가 있지만, 해방 전은 조선, 해방 후는 한국, 전체 시기를 통칭할 때는 한국으로 한다. 지리적으로 해방 전은 한반도 전역이며 해방 후는 남한만을 지칭한다.

미로운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장기 무역통계의 정비에 초점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각 시기의 경제적 성과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무역에 관한 제 지표의 장기적 추이와 시기별 특징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각 시기를 상대화함으로써 고도성장기의 무역성장도 비로소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²⁾ 나아가 이들 무역지표는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도록 추계될 것이기 때문에 국제비교에도 활용될 수 있다.

무역통계는 개항 초기까지 소급하여 장기계열을 작성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각 시기별로 자료상황의 편차가 크다. 특히 개항기에는 1884년 海關이 개항장에 설치될 때까지는 무역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이 없었으며, 해관 설치 이후는 중국이 그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조선의 무역통계는 중국해관에서 발행된 자료의 부록으로 실려 있는 형편이었다. 청일전쟁 이후에는 그마저도 발행이 중단되어 조선 해관의 무역통계는 여러 단편적인 자료에 산재되어 남아 있다. 합병 이후에는 조선총독부가 관세 업무를 장악하고 비교적 체계적인 무역통계를 작성하였다. 해방 후에는 상공부와 세관국(후에 관세청)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무역통계를 작성하였지만, 『무역통계연보』가 발행되기 전까지는 여러 기관에서 발행된 통계서에 단편적으로 수록되는데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항기와 식민지기에 관해서는 무역통계를 정비하려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먼저, 개항 초기의 무역통계를 면밀히 검토한 姜德相(1962)과 개항기의 무역 물가지수를 추계한 최유길(1972, 1974)을 들 수 있다. 최유길은 1900년 이전에 관해서는 『大日本外國貿易年表』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일본 이외 지역과의 무역이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김낙년(2001)은 1885~97년에 대해 『朝鮮海關年報』³⁾와 『한국지』를 이용하여 중국과의 무역도 포함한 무역지수를 작성하였다. 그렇지만 일부 연도는 자료를 구하지 못해 지수가 단절된 채로 남아 있다. 식민지기의 무역 물가지수를 추계한 연구에는 溝口・梅村(1988)와 堀

2) 예컨대 한국무역협회가 편찬한 『한국무역사』를 보면 다루는 시기를 1945년 이후로 한정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해방 후 우리나라 무역의 빠른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을 근대 이후의 역사에 비추어 상대화해서 파악하려는 시각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다.

3) 중국해관(Imperial Maritime Customs)이 발간한 *Returns of Trade and Trade Report*의 부록에 실린 조선해관의 *Report on Trade of Corea and Abstract of Statistics*를 말한다. 공간된 기간은 1885년부터 1893년까지이며, 국내에서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朝鮮海關年報』로 출판되었다.

和生·김낙년·박기주(2006)가 있으며, 모두 『朝鮮貿易年表』를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 중에서 溝口·梅村가 추계한 무역 물가지수는 대상 기간이 1911~38년으로 짧고, 당시의 무역분류에 따르고 있어 해방 후와 연결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堀·김·박의 추계는 대상 기간을 식민지기 전체로 확장하고 당시의 무역분류 외에 국제비교가 가능한 표준국제무역분류(SITC)에 따른 구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를 개선하였다. 본 논문의 식민지기 무역통계는 이 堀·김·박(2006)이 구축한 무역 DB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해방 이후 1963년까지는 무역통계는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며, 그 동안 무역통계를 정비하려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의 주된 과제는 각 시기의 무역통계를 정리하여 가능하면 일관된 기준에 의거하여 무역통계 DB를 구축하는 것이다.⁴⁾ 이 DB는 수출입 품목별로 연도별 가액, 수량, 단위, 단가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개항기와 식민지기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들을 모두 이용하였고, 개항기와 해방 직후에 관해서는 종래에 이용되지 않았던 자료들을 발굴하여 포함하였다. 그런데 본 논문과 같이 통계의 작성기관과 기준이 다른 통계들을 일관되게 연결하여 장기 시계열 통계를 만들고자 할 경우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해방 전과 해방 후의 통계는 대상 지역의 커버리지가 남북한과 남한으로 단절이 되는데, 무역통계는 남북으로 분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단절은 불가피하다. 또한 무역 금액의 표시화폐나 수량 단위가 자료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으며, 무역품의 분류 방식도 자료에 따라 상이하다. 일관된 장기 시계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 단절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Ⅱ장은 본 논문이 구축한 무역 DB가 어떤 통계자료에 의거했고, 일관된 시계열을 작성하기 위해 어떤 조정을 하였는지 상세히 언급할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이 DB를 이용하여 무역의 장기추이를 제시한다. 먼저 SITC 분류에 의거하여 무역의 분류별 구성이 각 시기에 어떻게 변했는지, 또한 무역의 집중도 지수의 추이를 통해 무역품목의 다양성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무역지수(수출입 단가지수 및 물량지수) 및 교역조건을 추계하여 제시한다. 이 DB에서는 1877~1963년의 계열을 구할 수 있으며, 본 논문은 이를 1963년 이후의 UN의 Comtrade DB 및 한국은행 발표의 무역지수와 접속하여 계열을 최근까지 연

4) 개항 이후 현재까지의 장기무역통계를 정비하는 일은 필자들과 堀和生가 공동으로 진행 중이며, 본 논문은 그 통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제IV장에서는 각 시기별로 무역의 특징을 비교하고 요약하였다.

II. 무역 통계자료와 DB 구축

1. 이용 자료

본 논문이 수행한 주된 작업은 대상 전체 시기에 걸쳐 수출입의 품목별 금액, 수량(및 단위), 단가 등의 정보를 담은 DB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DB 구축에 이용한 기본 자료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한 자료 이외에도 참고한 자료가 있지만,⁵⁾ 여기서는 가능한 한 자료 간에 일관성이 유지되고 또한 상세하며 장기 시계열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였다. 개항 이후 우리나라 무역 통계는 작성기관과 작성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무역통계 작성기관의 변천을 염두에 두고 <표 1>에 제시한 통계자료를 개항기, 식민지기, 해방 후로 나누어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이들 자료가 갖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했는지에 관해서는 다음 항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1) 개항기

1876년 2월 일본의 강요에 의한 개항 이후 개항장 무역이 시작되었으나 3 개항장(인천, 부산, 원산)에 해관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조선 내에 무역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이 없었다. 해관의 무역통계가 공간되기 전인 1884년까지의 무역통계는 일본 측의 자료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자료 [1] (이 숫자는 <표 1>의 해당 자료를 가리키며, 이하 동일)은 1877년 하반기부터 1884년 1월까지의 대일 무역 통계자료로서, 대장성 관세국의 『大日本外國貿易十八箇年對照表』 권말 부록으로 수록된 것이며, 품목별 누년 통계표로 제시되어 있다. 수록된 통계가 1884년 1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같은 시점에 조선해관이 설치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보완하는 1884년 2-12월의 수치는 대장성의 『大日本外國貿易年表』 1884년판에 수록된

5) 예컨대 1893-1902년 『仁川港輸出入額7年間對照表』, 1901-15년 『朝鮮輸出入品十五年對照表』, 해방 후 상공부의 『상품별수출입통계』와 『상공통계연보』 등이다.

일본과 조선 간의 수출입 통계((2))에서 가져왔다. 이상의 두 자료는 일본측이 작성한 자료이므로 조선의 입장에서 이용할 경우 일본의 대 조선 수출(수입)은 조선의 대 일본 수입(수출)이 된다.

1882년 9월 중국과의 통상조약(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되기 전까지의 개항장 무역은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1]에 의거하여 1882년까지의 개항장 무역을 파악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청과의 통상조약 이후 대청 무역이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대일무역만으로는 1883-84년 무역의 전모를 밝히기는 어렵다. 예컨대 1884년의 경우 다른 자료에 의해 무역 총액을 알 수 있는데, 위의 두 자료([1], [2])로부터 파악되는 대일 수출은 수출 총액에 거의 육박하지만 수입은 수입 총액의 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다.⁶⁾ 즉, 수출은 두 자료만으로 파악해도 큰 차이가 없지만, 수입은 그렇지 못하다. 이에 본 논문은 1884년의 수입 통계자료로서 개항장 주재 일본영사의 보고자료인 [3]을 활용하였다.⁷⁾ 이 자료는 각 개항장의 해관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산, 인천항은 모든 품목을 수록한 반면 부산항은 중요품 만을 제시하고 있어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자료를 이용하면 1884년 수입의 대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된 품목의 합계와 1884년 수출입 총액과의 차이를 기타 항목으로 처리함으로써 총액이 일치하도록 하였다.

조선해관은 1884년 1월에 설치되었지만, 중국이 조선에 차관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관의 운영권을 장악하였다. 조선해관은 설치 이후 무역통계를 작성하였지만, 그것은 중국해관이 작성한 중국해관 통계서의 부록으로 수록되어 발표되었다(자료 [4]).⁸⁾ 조선해관과 중국해관 총세무사가 모두 구미인⁹⁾이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현재 1885년부터 1893년까지의 통계가 입수 가능하다.

-
- 6) 자료 [1], [2]에 의하면 1884년의 대일 수출과 수입이 각각 44만 엔과 45만 엔이지만, 자료 [4]에 의하면 1884년 수출과 수입 총액은 각각 44만 엔과 95만 엔이고, 『通商彙編』(영사관 보고 제993호 명치19년 10월 21일)에 의하면 각각 44만 엔과 91만 엔으로 기록되어 있다.
- 7) 자료 [3]은 [1]보다 매우 다양한 품명이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다. 품명을 다른 자료와 비교 검토하고 후술하는 바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전후의 자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8) 각주 3 참조.
- 9) 조선해관 초대 세무사는 중국해관 총세무사인 하트(R. Hart)가 보낸 뮐렌도르프(P. G. Möllendorf)였다. 중국이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청일전쟁 이후에도 1908년까지 조선 총세무사는 중국 총세무사가 임명한 자였다.

1894년 이후에는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중국이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서 조선 무역통계가 중국해관 통계서에 더 이상 수록되지 않게 되었다. 그렇지만 조선 해관은 무역통계를 계속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인용한 2차 자료를 통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러시아 대장성이 발간한 자료 [5]에는 1883~97년의 무역통계가 제시되어 있다.¹⁰⁾ 그 중에서 1886~93년의 통계는 앞의 [4]를 인용한 것이고 이후 연도도 전과 동일한 내용과 형식을 유지하고 있어 [4]와 연속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비록 청의 조선에 대한 지배권은 약화되었지만 구미인이 총세무사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해관의 운영은 이전과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898~1900년은 기존 연구에서 자료의 공백기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자료 [6], [7], [8]을 통해 그 실태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6]과 [7]은 각각 일본 神戸세관과 橫濱세관이 조선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한 직원의 조사보고서에 수록된 것이다. 1898년과 1899년의 경우에는 품목명이나 통계의 상세한 정도에서 [5]와 크게 다르지 않아 조선해관의 통계에 의거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시화폐는 일본 円이고 품목명은 일본어로만 표기되어 있지만, 앞의 자료 [5]와 연결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다. 그런데 [7]에 수록되어 있는 1900년의 통계는 중요 품목에 국한되어 있어 극히 소략하다. 이에 본 논문은 그것을 대신하여 시계열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 [8]을 1900년 자료로 이용하였다.¹¹⁾ 이 자료는 조선 주재 영국영사의 연차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서, 조선해관의 자료에 의거한 것이며, 품명은 영어로, 금액과 무게 단위는 각각 파운드 스틸링과 파운드로 되어 있다. 그러나 화폐와 수량 단위를 환산하여 통일할 수 있다면 이전 연도의 자료와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¹²⁾

개항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 1901~07년의 자료 [9]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후 조선총독부가 조선해관의 통계를 수집하여 1911년에 작성한 것이다. 이 자료는 조선해관의 통계를 기초로 한 점에서는 앞의 자료들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품목

10) 원본은 러시아어이지만 국역본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국역본은 수치의 오류가 많아 원본으로 수정하였다.

11) 기타를 포함한 수출·수입 품목이 [7]에서는 각각 12개와 34개였지만, [8]에서는 20개와 44개였다.

12) 파운드를 円으로 환산하고 수량단위도 다른 자료와 일치시키면 1900년의 무역통계를 보여주는 다른 자료(『通商彙纂』 제193호)와 품목이나 수량, 금액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개항장별 통계까지 제시하고 있다. 총독부는 1916년에 다시 『朝鮮輸出入品十五年對照表』를 발간했는데, 이것은 항별 내역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에서는 (9)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 자료의 수록 기간은 1901~15년이기 때문에 식민지화 이전과 식민지기 통계간의 시계열적 단절과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9)를 기본자료로 이용하되 이 자료와 대조하여 통계의 일부 오류를 수정하였다.

2) 식민지기

식민지기의 무역통계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긴 해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러일전쟁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일본은 1908년에 조선정부 내에 관세국을 설치하고 세관 업무를 관리하게 되었다.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식민지기의 무역통계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다. 1908~09년은 조선이 아직 합병되기 전이지만 무역제도 면에서는 식민지기와 연속된다. 조선총독부가 매년 발간한 자료 (10)은 1908~41년간의 무역통계를 매우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다.¹³⁾ 단, 1922년에 새로운 품목이 포함되거나 일부 품목에서 세분화 또는 통합이 있고 수량단위에 변화가 있었다. 이는 일본의 관세법 및 관세정률법이 조선에도 시행(1920년)되면서 나타난 통계정비 과정의 결과로 생각된다. 중일전쟁의 발발(1937년) 후에는 일부 품목이 보안상의 이유로 공표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따로 정리하여 수록한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였다. 또한 1942년부터는 대일무역에 한하여 1944년 3월까지의 통계를 수록한 자료 (11)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자료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이 시기에 대일 무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일본 이외 지역과의 무역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제3국과의 수출입 통계가 누락된 점에서 1942년 이후는 이전 통계 계열과 단절이 있다.

3) 해방 후

해방 후 무역통계의 작성 체제가 본격적으로 정비된 것은 재무부 세관국이 『무역통계연보』를 발간한 1964년 이후라 할 수 있으며, 해방 후 1963년까지의 무역통계

13) 합병 이전인 1908년과 1909년 자료로 구한국 세관국의 『韓國外國貿易年表』가 있는데 이는 자료 (10)의 1910년도판에 수록된 3개년 누년표와 내용이 일치한다.

는 여러 기관에 의해 작성된 통계서에 단편적인 형태로 실려 있다. 이 시기의 무역 통계는 상공부와 세관국(한국은행의 경우 세관국 통계에 기초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에 의해 작성되고 있었는데, 양 기관의 통계는 수입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수출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전자는 결제기준(또는 허가기준)인데 비해 후자는 통관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해방 이전의 무역통계가 통관기준이었을 뿐 아니라 1960년대 중엽 이후의 무역통계도 세관국에 의해 통관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관성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세관국 자료를 이용하였다. 해방 이후의 무역 통계는 자료의 성격상 세 시기로 구분된다.

[12], [13], [14]는 이번에 새로 발굴한 세관국 자료이며, 1946-52년의 무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모두 등사본의 형태로 남아 있으며 그 무역 합계액이 다른 통계서의 수치와 일치하였다. 해방 후 일본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무역이 크게 위축되었지만 자료에 수록된 품목 수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자료가 무역품목을 매우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의 무역이 관리무역의 상태(박기주, 2006)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역통계를 수록하고 있는 다른 자료는 대체로 당시의 정부무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 세 자료는 정부무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자료들보다 우월하다. 다만 후술하듯이 해방 후의 수입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원조무역은 다른 자료와 마찬가지로 이들 자료에도 누락되어 있다.

1953-54년은 자료상의 제약이 가장 큰 시기이다. 원조무역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수록된 품목 수도 적다. 자료로 이용한 [15]는 한국은행 『경제연감』 내에 포함된 무역통계이며, 세관국 통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다. 품목 수가 적은 것은 자료가 중요품만을 수록하고 여러 개의 유사 품목을 합산하여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시기에 비해 통계의 상세한 정도가 크게 떨어지지만,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기 전까지는 이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경제연감』에는 유별 무역액도 수록되어 있는데, 유별 총액과 중요품의 합계액과의 차이를 각 분류의 기타 품목으로 처리함으로써 총액이 일치하는 무역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출처가 동일한 다른 통계서의 정보를 이용하면 이 자료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¹⁴⁾

14) 예컨대 1954년의 미곡, 소맥, 대맥 수입은 『제4회 대한민국통계연감』을 이용하여 보완하였다.

〈표 1〉 DB 구축에 이용한 자료

번호	자료명	작성기관	DB의 해당 부분	금액 표시	품목 수	기타
1	朝鮮舊貿易八箇年對照表	일본대장성판세국	1876-83년 수출입 1884년1월 수출	지폐円	출25-35 입52-67	개항장 무역
2	大日本外國貿易年表 1884	일본대장성	1884년2-12월 수출	지폐円	출45	
3	通商彙編	일본외무성	1884년 수입	지폐円	입152	
4	朝鮮海關年報 ¹	Imperial Maritime Customs	1885-93년 수출입	M. Dollar ²	출38-77 입59-97	
5	한국지	러시아대장성	1894-97년 수출입	M. Dollar / 円	출31-35 입105-109	
6	宮尾稅關監視官 韓國出張復命書	神戶稅關	1898년 수출입	円	출35 입115	
7	韓國出張報告書	橫濱稅關	1899년 수출입	円	출33 입110	
8	Diplomatic and Consular Reports	Foreign Office & Board of Trade	1900년 수출입	파운드	출41 입98	
9	朝鮮輸出入品七年對照表	조선총독부	1901-07년 수출입	円	출52-57 입185-190	
10	朝鮮貿易年表	조선총독부	1908-41년 수출입	円	출65-686 입291-577	
	朝鮮貿易年表 (非公開品)					
11	朝鮮貿易月表	조선총독부	1942-44년3월 이출입	円		대일무역
12	대한민국3년대조표	재무부세관국	1946-48년 수출입	圓	출46-94 입223-482	원조누락
13	무역연보	재무부세관국	1949-51년 수출입	圓	출104-119 입545-705	
14	무역연보	재무부세관국	1952년 수출입	圓	출146 입1056	
15	경제연감(1956년)	한국은행	1953-54년 수출입	백만원	출26-27 입42-43	원조누락 /중요품만
16	경제통계연보 (1960년; 1963년)	한국은행	1955-63년 수출입	천\$	출51-67 입240-307	

주: 1. 각주 3을 참조.

2. M. Dollar는 Mexican Dollar.

마지막으로 1955-63년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연보』 1960년과 1963년 판에 수록된 무역통계(자료 [16])에 의거하였다.¹⁵⁾ 이 통계 역시 세관국 통계에 기

초한 것이며 모든 품목을 망라하여 수출입 수량과 달러 표시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16]의 두 통계서에는 이전 자료와 달리 품목명에 SITC 코드가 부여되어 있는데, 1960년판은 SITC original, 1963년판은 SITC revision 1의 코드로 되어 있다.¹⁶⁾ 해방 후에 무역통계를 수록하고 있는 통계서에서 빈번하게 보이는 오식(typo)은 다른 연도의 통계서와 상호 비교하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2. 자료상의 문제와 DB의 구축

1) 통계자료의 문제

이상에서 본 논문이 이용한 자료를 개관하였지만, 일부 시기에 통계자료가 포괄하는 범위에 누락이 있는 등 자료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의 문제점을 그대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첫째, 통계자료에 일부의 무역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있다. 먼저 개항기의 무역 통계는 개항장의 해관 자료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 이루어진 무역이 빠져 있다. 육로 무역은 개항 이전부터 국경 부근에서 열린 전통적인 開市·後市 무역이 있으며, 그것을 대신하여 중국과의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시작된 국경무역이 있다. 육로무역은 개항 전후에 무시할 수 없는 규모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점차 개항장 무역으로 대체되어 갔을 것으로 보인다(姜德相, 1962). 또한 해관자료가 공간되기 이전의 대청 개항장 무역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자료 [3]을 이용하여 1884년의 수입통계를 보완하였지만, 1883년의 대청 수입은 자료가 없어 누락된 채로 남겨두었다. 또한 개항기 해관통계에는 조선산 재수입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소액으로 생각된다. 식민지기 말기인 1942~44년 3월의 무역통계는 대일무역에 한정되고 일본 이외 지역과의 무역이 누락되어 있음은 전술한 대로이다. 한편 해방 후 1954년까지의 통계자료에는 당

15) 한국은행은 1960년부터 매 연도에 『외국무역통계』나 『내외무역통계』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비록 이들 자료가 제시하는 품목 수는 [16]보다 다소 많지만 일관된 시계열의 확보에 문제가 있어 본 논문은 『경제통계연보』를 이용하였다.

16) UN은 1951년에 SITC original을 마련하였고, 1960년에 개정판 SITC re. 1을 만들어 국제적으로 통일된 무역분류로 사용하였다. 이후 1976년의 re. 2, 1988년의 re. 3를 거쳐 2007년에 re. 4가 나왔다.

시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 원조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PL480 원조를 제외한 모든 원조는 계획 원조(project aid)와 비계획 원조(non-project aid)로 구분되어 있었다. 비계획 원조는 품목별로 파악이 가능하지만, 사업별 원조인 계획 원조는 원조 총액만 제시되어 있어 도입 물자의 구체적 내역을 알 수 없다. 또한 당시는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환율이 다른 복수환율제여서, 원화(圓 또는 환)로 표시된 무역통계와 달러 표시인 원조를 통합한 무역통계를 작성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¹⁷⁾

둘째, 식민지기의 자료에는 조선세관을 통과하는 일본과 만주(및 중국) 간의 무역, 이른바 중계무역이라는 문제가 내재해 있다. 조선과 일본 간에는 1920년대부터 일부 극소수의 품목을 제외하면 관세가 폐지되어 마치 내국에서의 거래처럼 상품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이 만주(및 중국)로 수출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이 일본세관이 아니라 조선세관을 경유하게 되면 조선의 수출 또는 수입으로 무역통계에 계상되었다.¹⁸⁾ 그것은 실제로는 일본의 무역이지만 통계상으로는 조선의 무역에 포함되어 후자를 과대평가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서堀·김·박(2006)은 자료〔10〕과 만주 및 중국 측의 무역자료를 이용하여 중계무역을 뺀 실제의 조선 무역액을 추계하였다.

셋째, 무역액의 과소신고 문제가 있다. 먼저, 개항기에는 초기의 무관세 기간을 제외하면 수출입 관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세관이 통관 무역품의 가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될 때까지는 무역액 과소신고(밀수도 포함)의 유인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합병 이후에는 조선의 무역이 일본의 관세체계 속에 편입되어 통관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과소신고의 문제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조선과 일본 간의 무역(=이출입)¹⁹⁾은 통상의 외국무역(=수출입)에 비해 통관절차가 덜 엄격하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입세가 폐지될 때까지 과소신고의 가능성이 남아 있

17) 한국산업은행조사부(1955, pp. 1042-1045)는 1946-54년 수출입액을 정부 공정환율에 의거하여 달러표시로 환산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것에 의하면 수입에서 차지하는 원조의 비중은 1940년대 후반에 80%를 넘고 1950년대 전반에도 60-70%대였다. 그러나 이는 원조를 과대평가한 것이며, 만약 공정환율보다 2-3배 높은 시장환율로 환산하면 원조의 비중은 60% 전후로 낮아진다.

18) 일본의 대 만주(및 중국) 무역에는 조선세관을 경유하지 않고 지리적으로만 조선을 경유하는 통과무역도 있었는데, 그것은 조선의 무역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19) 식민지기에는 대일 무역을 이출 또는 이입으로, 그 외 지역과의 무역을 수출입이라 하였다. 이하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양자를 구분한다.

다. 堀·김·박(2006)은 조선의 대일 수입액과 일본의 대 조선 수출액 통계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작게 나타난 것은 과소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근거로 보고 그 규모를 추정할 바 있다. 마지막으로, 해방 후는 관리무역체제 하에 있었고 외환에 대한 집중관리가 행해졌다는 점에서 과소신고의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지만, 1950년대에는 높은 관세로 국내시장의 보호가 이루어졌으므로 밀수의 유인은 컸다고 생각된다. 다만 자료의 제약으로 그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넷째, 수출입액을 파악하는 기준도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항기 조선의 무역통계는 현지의 시장가격으로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중국해관 무역통계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堀·木越(2009)에 의하면 중국은 1904년부터 FOB와 CIF 가격 기준으로 옮겨 갔지만 조선 무역통계에는 그러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중국해관이 적용한 수출입 가격의 조정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즉, FOB 가격은 시장가격 수출액에 수출관세와 수출업자의 이윤을 더한 것이며, 시장가격 수입액에서 수입관세와 수입업자의 이윤을 뺀 것이 CIF 가격이었다. 堀·木越(2009)에 따르면, 시장가격으로 파악된 개항기의 무역액을 FOB와 CIF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수출액은 12.7% 확대되고 수입액은 13% 축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1〉의 자료에 의거하여 구축된 DB는 이러한 자료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개항기의 육로무역, 1942-44년의 제3국과의 무역 및 1945-54년의 전체 무역에 관해서는 새로운 자료가 발굴될 때까지 그 규모와 내역을 추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문제들, 즉 무역액의 과소신고와 식민지기의 중계무역, 그리고 개항기 무역액의 기준을 FOB/CIF로 통일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연구(堀·김·박, 2006; 堀·木越, 2009)에서 추정이 시도된 바 있다. 〈부표 1〉은 이렇게 추정된 무역액(‘추정치’)을 〈표 1〉의 자료에 의거한 총액(‘원통계’)과 비교한 것이다. 이 추정치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과도한 가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모두 보완하지도 않았다. 또한 총액 수준이라면 모르겠지만 개별 품목 수준까지 무역액을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1876-84년의 수출, 수입액은 각각 조선과 일본의 시장가격이므로 이후 연도의 수출, 수입액이 조선의 시장가격으로 파악된 것과 다르며, 또한 그것을 FOB/CIF로 계산하기 위한 근거도 아직 없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부표 1〉의 추정치는 아직 불완전한 수정 계열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수정치를 참고 계열로만 활용하고, 이하에서는 〈표 1〉의

자료에 의거한 무역액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단,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점으로 인해 이 계열이 실태와 괴리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통계 편제방식의 차이

일관된 장기 시계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할 때 각 시기에 따라 자료의 형식, 무역품의 분류방식 및 품명, 그리고 제시하고 있는 품목의 상세 정도(즉, 품목 수)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이 장애로 된다. 먼저 개항기 자료를 보면, 일본측 자료인 [1], [2], 일본 영사의 보고인 [3], 그리고 해관 통계인 [4], [5]는 서로 통계의 출처가 다르거나 자료 작성기관이 달라 이러한 세 가지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통계의 시계열적 연속성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반면에 자료 [6]~[8]의 경우에는 이전 시기의 자료와 작성기관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의 출처가 동일하여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시계열적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자료 [9]는 이전 시기의 자료와 동일하게 해관통계에 의거한 것이지만, 무역품의 분류방식과 품목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1908년에 조선의 세관업무를 장악한 일본은 17분류법에 의거하여 조선의 무역통계를 작성하였는데, 1901~07년의 해관통계를 정리할 때 그 분류법을 가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9]는 자료 작성방식에서 해관통계와 식민지기 통계 자료의 혼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기의 자료는 무역품 분류에 미세한 수정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해방 후에는 무역 통계자료의 편제방식이 여러 차례 달라졌다. 해방 직후 7년간의 무역 통계자료는 모두 관세국에서 작성한 것이지만, 그 후 1963년까지의 자료는 관세국 통계에 기초하여 1차 가공한 것이다. 관세국의 해방 직후 자료에서 품목 수는 수출에서 150개에 육박하고 수입에서는 천여 개나 되지만, 1953-54년 자료인 [15]는 중요품만 수록하여 수출에서 20여 개, 수입에서 40여 개 품목만 제시하고 있다. 1955년부터는 다시 수출 품목 수가 배증하였고 특히 수입 품목 수가 크게 늘어났다. 해방 후의 무역품 분류방식도 달랐는데, 1955년부터는 SITC origin과 SITC revision 1에 따르고 있으며, 해방 후 1954년까지는 분류방식이 다르지만 그 연원이 분명하지 않다.²⁰⁾

20) 1952년까지의 무역통계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13-14분류로 되어 있으며, 1953-54년 무역 통계에 대해 부여되어 있는 코드는 국제표준무역분류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경

통계자료간의 이러한 차이는 시계열 지표의 작성을 어렵게 한다. 물론 총액 지수의 장기 시계열을 작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품목별 혹은 유별 지수를 구하거나 물량지수, 단가지수, 교역조건 등 기본적인 시계열 지표를 작성하는 일은 자료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본 논문은 일관된 시계열 지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63년 이전의 전 시기에 걸쳐 모든 품목에 대해 SITC re. 3 코드를 부여하였다. 이는 SITC re. 3가 UN Comtrade의 장기 시계열 무역통계에 부여된 가장 최신의 개정판이며, 우리나라 관세청이 제공하는 1988년 이후의 무역통계도 re. 3 코드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²¹⁾

SITC 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과거의 품목 분류나 품목명이 SITC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경우도 있어 코드를 부여할 때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상세한 수준까지 분류하고 분류가 어려운 경우는 해당 분류의 기타로 처리함으로써 그보다 상위 수준의 분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5자리 코드를 부여하였지만, 정보 부족으로 세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3-4자리 코드를 부여하는 것에 그친 경우도 있다.²²⁾ 이렇게 코드를 부여하면 적어도 3-4자리 수준에서 일관성 있는 장기 시계열 지표의 작성이 가능해진다.

한편 통계 편제방식이 달라 품목별로 시계열이 연결되지 않는 두 종류의 자료를 접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두 자료의 통계 계열이 겹치는 해를 매개로 하여 두 계열을 접속할 수 있도록 그 해에 대해 두 자료의 통계를 모두 입력하였다. 그렇게 하면 두 시계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절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는 마치 물가지수 작성에서 기준연도가 다른 두 시계열을 연결할 때 한 해를 중복되도록 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이유로 1901, 1952, 1955년에는 두 종의 자료를 입력하였다. 예컨대 자료 [8]에서 1900-01년을, 자료 [9]에서 1901-07년을 입력하여

계연감』 1957년판) 이후 자료에서 볼 수 있는 SITC origin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21) 관세청은 현재 모든 거래품목에 대해 HS(Harmonized System) 코드를 부여하고 그것을 SITC 코드와 연결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HS는 UN의 통계위원회가 무역통계의 정리를 위해 권장하는 분류법으로, 기술이나 무역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되고 있다. 동 통계위원회는 1976년에 HS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SITC re. 3는 이런 방침에 기초하여 나온 개정이었다.

22) SITC re. 3 코드 부여는 일차적으로 堀和生 교수가 한 것을 기본으로 하여 보완, 수정하였다.

양자가 겹치는 1901년을 매개로 두 계열을 연결하였다.²³⁾ 해방 후에는 1952년과 1955년이 분류방식과 품목 수에서 단절이 심한 연도이다. 이에 자료 [15]를 전후로 한 해씩 연장하여 1952-55년의 계열²⁴⁾을 만든 다음, 1952년과 1955년에서 각각 자료 [14] 및 [16]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DB의 1910-41년 계열은 이출입과 수출입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이전 및 이후와 연결하기 위해 1910년과 1941년의 통계는 수출입과 이출입을 구분한 경우와 구분하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로 작성되었다.

3) 수량 및 화폐단위의 문제

무역 DB로부터 각종의 무역지표를 작성함에 있어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단가지수라고 할 수 있다. 단가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역품목의 금액과 수량을 표시하는 단위가 일관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본 논문이 대상으로 하는 시기가 19세기 후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그 동안 정치체제의 변화와 함께 자료의 작성 기관도 여러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무역통계에서 금액의 표시화폐나 수량단위가 변경된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먼저 표시화폐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본 논문이 DB 작성에 이용한 자료에서 무역액을 표시하는 화폐가 달랐음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개항 이후 1884년까지의 자료([1], [2], [3])에서는 무역액이 지폐 円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후의 조선해관 자료 [4]에는 멕시코 달러로 표시되어 있다. 중국상인의 조선 진출이 확대되면서 대량으로 중국에 유입된 신대륙의 은이 조선과의 무역거래에 사용되었고 또한 중국에 의해 해관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해관의 통계가 멕시코 달러로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대장성의 자료 [5]에는 금액 표시화폐가 단순히 달러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1895년까지는 멕시코 달러이고 이후는 일본 円이라고 註記되어 있다. 1896년부터 해방까지는 계속 円으로 표기되었으며, 식민지기의 조선은행권 1圓은 일본은행권 1円과 同價였다. 해방 직후는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조선은행권 圓이 그대로 통용되었고 무역액도 圓으로 표시되어 있다. 해방 후

23) 본 논문이 1900년 통계를 자료 [8]에 의거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때문이다. [7]을 1900년의 자료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품목 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임을 이미 언급했지만, 그 뿐만 아니라 [7]로부터는 1901년의 통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24) 1952년의 경우 내무부통계국의 『제2회 대한민국통계연감』에 수록된 통계를 이용하였다. 이것은 자료 [15]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금액의 단위를 좀더 상세하게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급락하자 1952년 화폐개혁이 단행되어 1圓이 1/100환으로 되었으며, 무역액의 표시화폐도 환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1955년부터는 무역통계의 표시화폐가 달러로 변경되었으며,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다양한 표시화폐를 가능한 한 통일하여 시계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개항 초기(1877~84년)의 지폐 円은 대장성이 제시한 교환비율을 이용하여 円銀(즉 円)으로 환산하였다.²⁵⁾ 한편 일본 円銀과 멕시코 달러 간에는 미미한 量目的 차이가 있지만 당시 양자는 사실상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²⁶⁾ 1883년에 일본정부와 조인된 ‘朝鮮貿易章程’에 따르면 멕시코 달러는 일본 은화와 同價이며 換用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었다(堀·木越, 2009). 따라서 여기서는 1885년부터 1895년까지의 멕시코 달러를 곧 円銀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그 결과 개항기부터 해방 때까지의 무역 금액은 모두 일본 円으로 통일된 셈이다. 해방 후에도 명목상으로는 円(즉 조선은행권 표시단위인 圓)이 계속 사용되었지만, 해방 전에 작동했던 일본 円과 同價를 유지하는 장치가 사라졌다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해방 후의 圓(또는 환)을 1955년 이후의 무역통계의 표시화폐인 US 달러로 환산하기는 어렵다. 당시 공정환율이 있었지만, 무역에 실제로 적용된 환율은 외환자금 원천이나 무역품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무역액의 표시화폐는 하나로 통일하지는 못하고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1877~1944년은 일본 円, 1946~54년은 圓(또는 환), 1955년 이후는 US 달러이다. 특히 1946~54년은 인플레이션이 극심(즉 통화가치가 급락)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후술하듯이 이 시기의 무역 단가지수는 그 영향으로 급등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수량단위를 통일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각 품목의 일관된 시

25) 교환비율은 최유길(1972)에서 인용하였으며, 원 출처는 明治財政史編纂會의 『明治財政史』 제11권(pp. 429-436)이다.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지폐 円이 사용되었지만, 지폐 남발로 인해 무역거래에서 사용된 円銀과의 사이에 가치의 괴리가 생겼다. 지폐 남발에 의한 인플레이가 수습됨에 따라 1885년부터는 양자의 괴리는 사라졌다.

26) 은화인 멕시코 달러와 円銀은 각각 순은 24.43567g과 24.26071g(『國譯 韓國誌』 부록, p. 128)으로 되어 미미한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는 등가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円銀 자체가 19세기 중엽에 동아시아에서 무역통화로서 통용되고 있던 멕시코 달러와 등가로 교환될 것을 의도하여 만들어졌다.

계열을 작성하는데 적지 않은 곤란함을 야기한다. 물론 부피 단위를 다른 부피 단위, 길이 단위를 다른 길이 단위로 바꾸는 것은 간단하다. 그러나 예컨대 곡물류에서 石이 擔(=100근)으로 바뀌거나 직물류에서 反(단으로 읽음)이 평방야드(方碼)로 바뀌는 경우가 문제이다. 전자에서는 부피를 무게로 환산해야 하는데 곡물마다 동일한 부피의 무게가 다르며, 후자에서는 단이라는 척도를 서양식의 척도로 바꾸어야 하는데 단의 크기가 직물의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개항기에는 쌀 1석은 2.375담, 대두 1석은 2.15담이며, 식민지 자료에서는 각각 2.45담과 2.25담으로 계산된다. 또한 직물류를 보면 개항기에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生金巾 1단은 40평방야드, 寒冷紗 1단은 약 11.7평방야드로 계산된다. 그러나 환산율을 알 수 없는 품목도 상당수 있다. 수량단위의 문제로 인해 단가 시계열에 단절이 생기면 단가지수의 커버리지가 낮아진다. 예컨대 본 논문이 작성한 수입 단가지수의 1908년 커버리지는 30%를 넘어서지 않는데, 이는 직물의 수량단위가 1908년부터 단에서 평방야드로 변경되었지만 환산율을 알 수 없어 계산에서 누락된 직물류가 많기 때문이다.

단가지수의 커버리지가 낮으면 단가지수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여타의 무역지수에도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무역지수를 얻기 위해서는 무역 품목별로 금액과 수량에 관한 정보(즉 품목별 단가계열)를 가능하면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히 개항기의 일부 연도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단가를 보완하기로 하였다. 예컨대 1883년에는 수량 정보가 없어 단가를 알 수 없는 품목이 많다. 이는 그 해에 개항된 인천항 무역의 수량 정보가 결락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1]과 동일한 내용의 자료이며 각 품목의 개항장별 수량과 금액이 제시되어 있는 일본 대장성 발행의 『朝鮮貿易年表』(1882년과 1883년판)에서 부산과 원산항의 정보만으로 단가를 계산하여 DB에 추가하였다. 그 외에 [1]에는 포함되지 않은 4개 품목의 단가 정보를 발견하여 DB에 추가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면, 자료 [8]에서는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었던 9개 품목에 관한 정보를 [7]로부터 얻을 수 있다. 본 DB에서는 이들 품목을 추가하고 그 대신 이 추가된 품목의 금액을 [8]의 기타 항목에서 차감하였다.

한편 무역 품목명이 자료에 따라 다소 달라지거나 국문(일문) 및 영문 표기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 또한 적지 않은데, 동일한 품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품목명을 통일하고 영문명도 추가하였다. 특히 개항기의 자료들 간에는 동일 재화임에도 불

구하고 영문 품명이 다소 상이하게 표기된 경우가 있다. 이들을 상이한 품목으로 취급하게 되면 시계열에 단절이 생기므로, 품목명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자료 [1]에는 우피가 “Hides, Cattle”로 표기되어 있지만 [4]에는 “Hides, Cow”라고 영문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전자를 후자로 통일시켰다. 또한 전자에서 “Shirting, Grey”로 표기된 생금건이 후자에서는 “Shirting, Grey, Plain”으로 표기되어 있어, 역시 하나로 통일하였다. 좀 더 나아가 품목명은 일치하지 않지만 금액이 크고 전후의 맥락에서 보아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이 있다. 예컨대 개항 초기의 수출품에 두류로 표기된 것이 있는데 이후의 이어지는 연도의 통계로부터 그것의 대부분이 대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SITC를 참조하면서 전 품목에 대해 영문 품명을 부여하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통계를 처리함으로써 품목명의 비일관성에 기인한 계열의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Ⅲ. 유별 구성과 무역지수의 장기 추이

1. 유별 구성의 장기추이

이상의 자료에 대한 검토와 수정·보완을 통해 1945년을 제외한 1876~1963년의 전시기에 걸친 무역통계 DB가 구축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DB를 이용하여 SITC 코드별 무역 구성의 장기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DB와 1963년 이후의 UN의 Comtrade DB를 연결하였다. Comtrade는 세계 각국의 무역 DB를 제공하는데, 한국의 무역통계에 대해서도 SITC로 분류한 1962년부터 2006년까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SITC 코드는 지금까지 수차례 변경되었으며, 본 논문의 DB에는 전술한 대로 re. 3 코드가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196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Comtrade DB에는 re. 1의 코드가 부여되어 있으며²⁷⁾ 따라서 re. 3 코드를 사용한 본 논문의 DB 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re. 1 코드를 re. 3 코드로 변환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방대한 작업일 뿐 아니라 본 논문이 파악하려는 유별 수준에서는 양자 간에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²⁸⁾ 본 논문은 SITC re. 1의

27) Comtrade의 한국 무역통계는 re. 1에 의해 1962-2006년, re. 2에 의해 1976-2006, re. 3에 의해 1988-2006년까지 구축되어 있다.

28) Comtrade DB의 정합성에 대한 분석 및 그것의 활용방법에 관해서는 野田容助 편(2005)를 참조.

Comtrade DB를 별도의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하에서 볼 유별 구성의 장기 추이에는 개항기의 육로무역, 1942~44년의 일본 이외 지역과의 무역, 1946~54년의 원조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미리 언급해 둔다.

〈그림 1〉과 〈그림 2〉는 SITC의 한 자리(1-digit) 분류, 즉 9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 수출입 구성의 추이를 보여준다.²⁹⁾ 지면의 제약 때문에 대분류 구성비와 두 자리(2-digit) 분류의 무역액, 그리고 후술하는 무역지수의 매년도 수치는 모두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www.naksung.re.kr/wp2009-3.pdf)에 부표로 게시하였다. 대분류명은 ‘식료품과 산 동물’(0), ‘음료와 연초’(1), ‘비식용 원재료’(2), ‘광물성 연료·운활유·同제품’(3), ‘동물성·식물성 유지’(4), ‘화학제품’(5), ‘원료별 제조업 제품’(6), ‘기계 및 운반용기기’(7), ‘잡제품’(8), ‘미분류’(9)이다. 그림에서 각 분류별 비중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누적되어 있으며, 1945년의 통계는 결락되었다. 식별이 용이하도록 9 대분류 중에서 비교적 비중이 큰 것만을 그림에 도시하였으며, 따라서 그림에서 100 이하의 최상단은 나머지 분류를 합산한 비중을 나타낸다.

먼저 수출의 구성비를 보면, 개항기에는 ‘식료품과 산 동물’의 비중이 큰 폭으로 등락하면서 대략 50% 전후를 차지하고 ‘비식용 원재료’도 그와 비슷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 둘을 합한 것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식료품에는 개항기 최대 수출품인 쌀이 포함되어 있다. 쌀의 대일 수출은 1880년대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거의 매년 수출품 중에서 제1위의 자리를 유지하였으며, 이후 식민지기와 해방 직후까지 쌀은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쌀 수출량은 일본 내 미국시장의 수급상황뿐 아니라 조선의 풍흉에 따라 크게 변동하였다. 비식용 원재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두와 우피였다. 개항 초기 수 년간은 우피가 제1의 수출품이었으나 일본에서 간장제조 원료로 사용된 대두가 1880년대 후반부터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식민지기에도 식료품과 비식용 원재료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였다. 쌀의 비중은 개항기 말에 약간 정체하다가 식민지기에 다시 상승하였다. 특히 1910년대 말에 미가 폭등으로 인한 소동을 겪은 일본은 식민지인 조선에서 1920년부터 쌀 증산계획을 추진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일 쌀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대두가

29) 이 유별 구성은 개항기 및 식민지기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재수출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재수입은 미미하고 재수출은 식민지 초기까지 대개 수출 총액의 2~4% 정도를 차지하였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항기보다 크게 낮아졌다. 1920년대 말부터 농업공황에 의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 대두는 물론 그 동안 상승하던 쌀의 비중도 급격히 하락하였다. 1930년대부터는 식료품과 비식용 원재료의 비중이 크게 하락한 대신에 '제조업제품'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그 자리를 메웠다. 이는 식민지기에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무역구조에 나타난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당시 조선은 일본에 대해서는 선철 및 銅과 같은 중간재 성격의 공산품을 수출하였지만, 제3국에 대한 수출에서는 면직물이나 면사와 같은 소비재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비식용 원재료 수출에서도 식민지 초기에는 농산품인 대두가 중심이었으나 이후에는 그것을 대신하여 점차 生絲, 柞蠶生糸, 家蠶과 같은 제사업 중간재와 원료, 면제품 원료인 繅綿, 그리고 금은광물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중일전쟁 이후의 전시에는 수출 구성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 1939-40년의 대 흉작으로 인해 대일 쌀 수출이 급감하면서 식료품은 20%대로 하락하였으며, 식량 대신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공급지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원료별 제조업 제품'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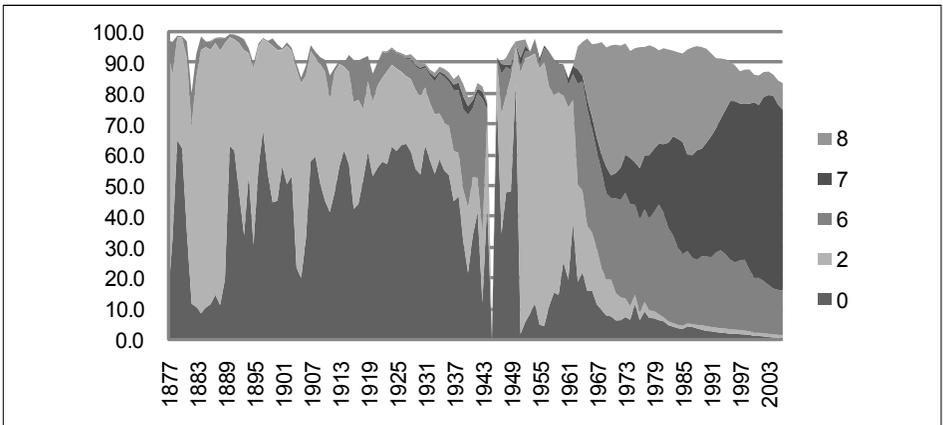
반면, 해방 후는 종래 일본과 연결되어 있던 재생산구조의 고리가 단절되고 전쟁의 파괴도 있어 공업 생산이 거의 붕괴되었기 때문에, 식민지기 후반기에 상승하던 제조업 제품의 비중은 크게 하락하였다. 대신 중석광과 같은 광산물이 당시의 주력 수출품이 되면서 비식용 원료의 비중이 다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외에 魚介類 중심의 수산물 수출 증가로 식료품의 비중도 증가하였다. 1950년대 중엽까지 이 둘을 합한 비중이 9할 전후였으며, 1950년대 말에 섬유제품의 수출이 있었지만 무시할 만한 정도여서 여전히 둘의 비중이 8할 정도를 차지하였다.³⁰⁾

1960년대 초부터 수출주도적 공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원료별 제조업 제품'을 비롯한 '잡공업 제품'의 비중이 급증하고 비식용 원료와 식료품의 비중은 급속하게 하락하였다. '기계 및 운반용기기'의 비중은 중화학공업화가 진행된 1970년대부터 점차 증가하여 마침내 수출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960~70년대에는 경공업품인 '의류'가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합판이 포함

30) 그림에서 1950년에 '식료품과 산동물'의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아진 것은 '곡물' 수출 때문이었다. 당시 민간 및 정부 수출품에 전후 연도에는 전혀 없던 정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금액으로는 총 수출액의 7할 이상인 384.6억 원이었다.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1960년에도 전후 연도에 비해 많은 정미의 수출이 있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다.

된 ‘목제품’과 ‘방직사·직물’ 등이 순위를 잇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를 통해 가전제품과 선박 및 자동차의 수출이 증가하여 ‘기계 및 운반용기기’가 1위를 차지하면서 수출 상품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수출구조의 변화는 기계 및 운반용기기 내에서 반도체 등 IT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구성의 변화를 동반하면서 최근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1980년대만 해도 의류가 수출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수출 순위의 상위를 기계류가 모두 차지하였다.

〈그림 1〉 수출 유별 구성비 추이



- 주: 1. 해방 이후는 남한의 무역이며, 분류명은 본문 참조.
- 2. 구체적인 수치는 낙성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naksung.re.kr/wp2009-3.pdf>) 부표 참조. 이하 그림도 동일.

수입 구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개항기의 수입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 것은 면직물이 포함되어 있는 ‘원료별 제조업 제품’이었다. 개항 초기에 그것은 수입의 90% 가까이 차지하였으며, 개항 말기에도 그 비중이 5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개항기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면직물이 일본과 중국 상인을 통해 수입되었으며, 개항 초기에는 대부분 영국산 生金巾 (shirting) 과 寒冷紗 (lawns) 였으나³¹⁾ 개항 말기에는 일본산 면직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이 외에 개항기의 주요 수입품에는 면사와 견직물, 석유, 염료 등이 있었다.

식민지기에도 제조업 제품은 30~40%대의 거의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였으나 그

31) 생금건은 가장 일반적인 平織 면직물로서 玉洋木, 唐木이라고도 하며, 한랭사는 얇고 거친 여름용 기계제 면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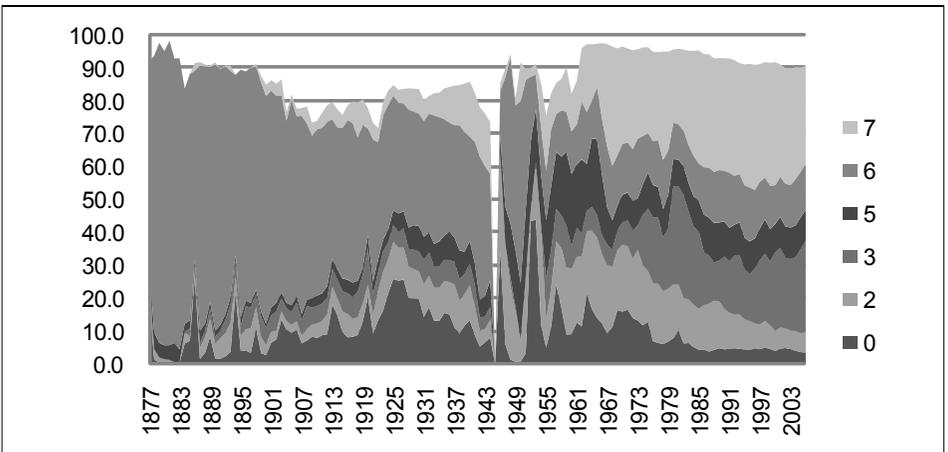
구성이 크게 변하였다. 즉, 섬유공업 제품의 비중이 급격히 하락한 대신 다른 제조업 제품의 비중이 상승한 것이다. 개항기에 대체로 수입의 30~80%를 차지하던 방적사·직물류의 비중은 1930년대에 20% 전후로까지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이는 그동안 무역 규모가 크게 증가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식민지기에 수입대체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철강제품, 금속제품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철은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 높았는데, 이는 중간재인 선철을 이출하는 대신 최종재인 강철 및 금속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식료품과 산 동물'이었다. 그 비중이 1920년대 중엽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는 쌀 이출을 대신하여 만주 잡곡의 수입되었기 때문이며, 이후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그 비중은 하락하였다. 이 외에 '비식용 원료'의 비중이 작잠생사 수입으로 인해 1920년대 중엽에 10%로 상승했다. 한편 '기계 및 운반용기기' 역시 1920년대 중엽부터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1930년대 말에 식료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당시 조선에서 진행된 공업화를 위한 기계가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것과 관련이 있다.

해방 후 수입 구성에서도 수출에서와 마찬가지로 격동이 있었다. 해방 직후에 수입 구성은 단기간에 급격이 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업 위축에 따른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원료별 제조업 제품'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인구 증가와 전쟁으로 인한 식량 수요가 식료품 수입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수입은 이전과 비교하여 유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구조를 보여주었다. 식민지기에 그 비중이 10%대로까지 크게 줄어든 방적사·직물류는 해방 후 일본자본의 철수와 생산 위축으로 인한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입이 증가하면서 다시 수입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에 이어 무기화합물이나 비료 등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196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기계 및 운반용기기'가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1960년대 이래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섬유기계와 같은 일반 산업용 기계 수입이 증가하고 선박과 같은 운반용 기기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 이후에는 공장용 내연기관이나 동력기 등의 수입이 이전보다 한층 증가하였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첨단산업 중심으로 변하면서 IT 관련 품목의 수출이 늘었지만, 수입 역시 증가하여 1990년대 중엽 이후에는 IT 관련부품이 포함된 전기기기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

하였다. 수입구조는 이처럼 국내 생산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한편 광물성 연료·윤활유의 비중이 1970년대 이래로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1970년대의 오일쇼크라는 석유가격의 인상이 순위 변동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 결과 油類는 1970년대 중엽부터 10년간 수입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이후 한동안 순위에서 밀려나 있다가 석유 가격이 최근에 급상승하면서 다시 1위의 수입품이 되었다.

〈그림 2〉 수입 유별 구성비 추이



주: 〈그림 1〉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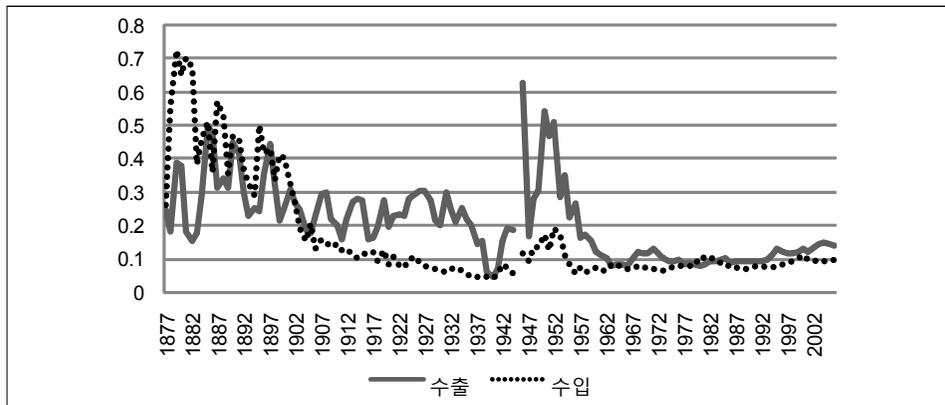
이상에서 SITC 분류에 의한 무역 구성의 장기적 추이를 살펴보았다. 개항 이후 130년 동안 한국의 무역은 1차 산품을 수출하던 구조에서 경공업품, 나아가 기계류 등의 중화학공업품을 수출하는 구조로 변화하였으며, 섬유제품에만 집중되었던 수입은 기계류를 비롯한 다양한 제조업 제품을 수입하고 나아가 그것의 생산에 필요한 연료 및 원료를 수입하는 구조로 변화하였다. 무역구성의 이런 변화는 사실 식민지기인 1920년대 후반 또는 말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수출에서 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방적사와 제철 및 비철금속 수출이 상위에 올랐으며, 수입에서도 섬유제품에 비중이 급감하고 특히 식민지기 후반에 기계류의 수입 비중이 커지고 유별 구성이 다양해졌다. 식민지 후반기에 시작된 무역 구성의 변화는 공업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추이는 해방 후 1950년대에 크게 교란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1960년대에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무역구성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무역 집중도를 두 자리 분류(2-digit)의 수준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무역집중도의 추이를 보기 위해 여기서는 산업 집중도를 계산할 때 흔히 사용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를 원용하였다. HHI는 각 분류의 구성비를 제곱하여 합산한 값으로 계산하며, 그 값이 클수록 집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무역 집중도는 개항기에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매우 높았다가 이후 하락하였다. 집중도 하락은 수입에서 특히 컸으며 수출에서는 비교적 완만하였다. 개항 초기에는 수입의 집중도가 수출보다 높았지만 개항기 말부터는 수출의 집중도가 더 높았다. 식민지기에도 수입 집중도는 계속 하락한 반면 수출 집중도는 오히려 상승하였는데, 이는 식민지기에 쌀 이출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다. 그러나 1930년대에 쌀 이출이 줄고 다른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 집중도 역시 급격히 하락하여 마침내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아직 무역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수입은 일찍부터 다양해졌으며 수출 역시 1930년대에 쌀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 10여 년 동안에는 공업 위축과 대일 무역의 단절, 그리고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수출 집중도가 심하게 등락하였으며 수입 집중도 역시 등락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는 수출 집중도와 수입 집중도 모두 미미한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었다.

〈그림 3〉 무역 집중도지수(HHI)의 장기 추이



주: SITC 두 자리(2-digit) 분류에 의해 계산한 집중도임.

2. 무역지수의 장기동향

이하에서는 무역 DB로부터 작성한 무역지수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무역지수에는 수출입의 금액지수, 단가지수, 물량지수가 있다. 금액지수는 비교년의 수출입액을 기준년의 수출입액으로 나누어 지수화한 것이며, 물량지수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금액지수/단가지수’로 계산한다. 단가지수는 수출입 품목별 금액을 수량으로 나눈 단가를 이용하여 구한 가격지수이다. 수출품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의 크기를 보여주는 순 상품교역조건은 수출 단가지수를 수입단가지수로 나누어 계산되며, 이 상품교역조건에 수출물량지수를 곱하면 수출로써 수입할 수 있는 수입물량을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이 된다. 이로 보건대, 무역지수 중 단가지수를 제외한 다른 지수들은 계산이 비교적 용이하거나 단가지수로부터 쉽게 계산될 수 있다.

단가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수출입 품목별 금액과 수량 통계는 별도의 추가적인 조사 없이 관세청의 통관 자료를 통해 손쉽게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찍부터 단가지수를 작성하여 왔다. 그러나 이 지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무역품의 단가는 단순히 금액을 수량으로 나눈 것이므로 품목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동일 품목 내에 고가품과 저가품이 섞여 있고 가격차이가 크면 그 구성의 변화만으로도 단가는 크게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불완전성 때문에 단가지수와는 별도로 한국은행은 수출입 물가지수와 수출입 디플레이터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전자는 교역품의 가격 동향을 파악하려는 것으로서, 다른 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미리 선정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며 조사 품목의 동질성을 전제하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후자는 국민계정 상의 실질 수출입액을 구하기 위한 것인데, 직접 조사한 수출입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단가도 이용하여 산출된다.³²⁾ 물론 수출입 물가지수나 디플레이터도 단가지수와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작성 가능한 것은 단가지수이다. 단가지수는 품질의 시계열적 동질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금액과 수량 정보가 있는 모든 무역품의 단가를 지수작성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과거로 거슬러 올

32) 이들 무역 관련 지수는 그 작성에 이용된 품목 수도 크게 다르고, 지수 산정의 산식도 다르다. 그 차이에 관해서는 한국은행(2004)를 참조.

라가면 별도의 가격 조사가 이루어졌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성 가능한 것은 단가지수뿐이다. 지수 작성 방식에는 개별 단가를 가중 평균하는 방식에 따라 라스파이레스, 파셰, 피셔 산식이 있으며, 기준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준년 고정방식과 연쇄방식이 있다.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기준년의 수량을 가중치로 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비교년의 수량으로 가중 평균하는 파셰 지수는 거꾸로 과소평가하는 편향을 갖는다. 따라서 두 지수의 기하평균인 피셔 지수가 그런 편향이 없는 중립적인 지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준년을 매년 변경하는 연쇄지수는 기준년 고정방식에 비해 기준년과 비교년 간의 가중치 차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지수가 실체를 과대(또는 과소) 평가되는 편향을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기준년 고정방식에서는 기준년을 어디로 하는가에 따라 시계열이 바뀌지만 연쇄지수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³³⁾ 지수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는가에 따라, 특히 장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지수를 작성할 경우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과대, 과소 편향이 없는 피셔 연쇄지수 방식으로 단가지수를 작성하였다.³⁴⁾

〈부표 2〉에는 피셔 연쇄방식으로 작성한 1877년 이후 2007년까지의 수출 및 수입 단가지수가 제시되어 있다. 해방 전은 1935년, 해방 후는 2005년을 100으로 한 지수이며, 1945년은 자료가 결락되었을 뿐 아니라 전과 후의 지리적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단절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부표에서 해방 전과 해방 후의 단가지수 수준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해방 전은 단가의 단위가 모두 円으로 통일되어 있는 단가로부터 작성한 지수이고 1946-54년은 원화(圓 또는 환), 1955년 이후는 달러로 표시된 단가로부터 작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1946-54년의 원화로 표시된 무역액을 달러로 환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그대로 두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출 및 수입 품목에 따라 환율이 달라지는 복잡한 복수환율제가 시행되어 품목별로 달러표시 단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방 후 약 10년 동안에 단가지수가 급등한 것은 원화의 가치 하락(즉, 달러 환율 상승)에 기인한 바가 크

33) 연쇄지수의 경우에 기준년은 그 해의 지수를 100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준년이라는 표현 대신 참조년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34) 피셔 연쇄지수(F_{cp})는 라스파이레스 및 파셰 연쇄지수(L_{cp}, P_{cp})의 기하평균으로 계산된다. 즉, L_{cp} = 전년도 지수 $\times (\sum p_t q_{t-1} / \sum p_{t-1} q_{t-1})$, P_{cp} = 전년도 지수 $\times (\sum p_t q_t / \sum p_{t-1} q_t)$, $F_{cp} = (L_{cp} \cdot P_{cp})^{1/2}$ 이다.

다. 따라서 이후 시기의 단가지수와는 시계열 추세 상의 단절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표 2〉의 단가지수는 본 DB로부터 작성한 1963년까지의 단가지수에 한국은행의 단가지수를 연결한 것이다. 한국은행의 1960년대 단가지수는 금액지수를 고정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로 나누어 계산한 사실상의 기준년 고정 파쉐 지수이며, 1970년부터 현행의 파쉐 연쇄지수 방식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단가지수에는 그러한 단절이 있지만 1970년대 이전에는 지수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기준년 고정지수와 연쇄지수 간에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파쉐 지수로 작성된 한국은행의 단가지수는 실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이후의 과제로 미룬다.

단가지수의 추이를 보면, 개항기에 수출 단가지수는 두 배 이상으로 상승하였지만 수입 단가지수는 초기 몇 년을 제외하면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였다.³⁵⁾ 특히 수출 단가지수는 대일 쌀 수출이 증가하는 1880년대 말부터 청일전쟁 직후까지 급상승하였다.³⁶⁾ 1차 산품(쌀과 대두)의 수출가격은 당시 일본에서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식량과 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아 상승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수입 공산품, 특히 면제품의 가격은 공장제 생산에 의해 대량으로 공급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이는 모두 개방체제가 가져온 효과였다.

식민지기에 수출 단가지수는 1910년대의 상승, 1920년대의 하락, 1930·40년대의 상승이라는 추이를 보였다. 1910년대 전반에는 안정적이었던 수출 단가지수는 제1차 세계대전기에 3배 가까이로 급등하였다. 단가지수는 1921년에 하락한 이후 1925년까지 약간의 상승이 있었지만 1931년까지 급락하면서 1920년대에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추세였다. 1932년부터 다시 시작된 단가지수의 상승은 중일전쟁 이후에 가속화되었다. 대공황기에 세계시장에서의 무역 디플레이터가 1933년까지 급락한 후 서서히 상승한 것에 비하면, 단가지수의 하락기간이 짧았고 상승속도는 빨랐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황으로부터 일본경제권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수입 단가지수의 추이 역시 수출 단가지수와 유사하였으며, 지수 등락의

35) 수입 단가지수는 개항 초 2-3년간 크게 하락하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직물의 단가가 포함되지 않아 커버리지가 매우 낮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36) 비슷한 시기에 세계시장에서의 무역 디플레이터 추이가 30% 정도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U자형을 보인 것(Maddison, 1995)과는 차이가 있다.

시점도 양자가 거의 일치하였다.³⁷⁾

원화표시 단가로부터 작성된 해방 후 10년간의 단가지수는 급격한 상승을 보였지만, 달러표시 단가로부터 작성된 1950년대 중엽부터 1960년대 초까지의 단가지수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처음 10년 동안의 단가지수 급상승은 전술한 대로 원화 가치 하락의 영향이 크다. 동시에 이러한 단가지수 상승에는 세계시장에서 전후 복구와 한국전쟁에 따른 수요라는 실물적 차원의 요인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³⁸⁾ 1960년대에도 단가지수는 1950년대 후반과 마찬가지로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두 차례의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급격히 상승하였다. 수출 단가지수는 1990년대 중엽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이후 하락한 반면, 수입 단가지수는 일정한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최근 수년간 유가 앙등으로 인해 상승하였다.

금액지수를 단가지수로 나누면 물량지수를 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부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1884년 이전은 대일 무역만을 포함하고 있다. 1942~44년은 수출입의 상세한 통계는 없지만 총액을 알 수 있고 또 1944년도의 수출입 총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본 DB로부터 수출입 총액을 구하고 그것을 단가지수로 나누어 물량지수를 계산하였다. 해방 후 1946~54년간은 금액(따라서 단가)이 원화 표시로 되어 있다. 그런데 금액지수를 단가지수로 나눈 물량지수는 실물적 변화를 보여주는 지수이므로 무역액이 달러 표시로 되어 있는 1955년 이후의 물량지수와 연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수입의 경우에 1946~54년에는 당시 수입 총액 중 5~8할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원조가 자료의 제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시기와 단절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부표 2>에 제시한 물량지수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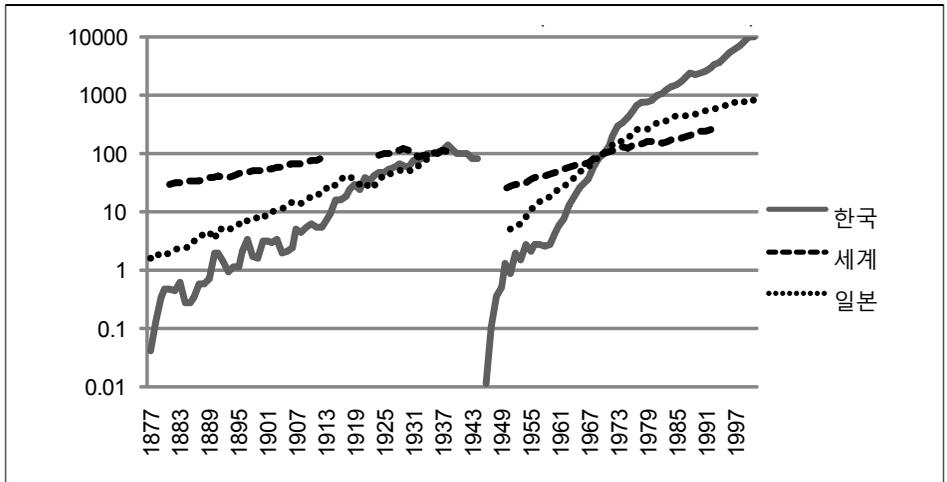
한국의 경제성장이 빠른 무역 성장에 의해 견인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무역의 성장은 비단 고도성장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개항 이후 일관되어온 현상이었다. 해방 후 일본과의 경제적 단절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무역이 거의 붕괴

37) 다만 단가적 변동과 등락의 폭에서 차이를 보여, 1차대전기에는 수출보다 수입 단가지수가 더 크게 급등락하였으나, 1920년대의 디플레이션기에는 수출 단가지수에서 등락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38) 세계시장에서의 무역 디플레이터는, 중간을 경로를 알 수 없지만 1930년대 말에 비해 1950년대 중엽에 2-3배 높았다(Maddison, 1995).

하다시피 한 1940~50년대를 제외하면, 수출(수입) 물량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개항기인 1880~1910년에 9.2% (13.5%), 식민지기인 1910~40년에 10.1% (8.6%), 고도성장기인 1965~95년에 19.0% (15.6%)였다.³⁹⁾ 한국의 이러한 무역 성장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본 것이 <그림 4>이다. 로그 축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기울기 자체가 물량지수 증가율이 된다.

<그림 4> 수출 물량지수의 비교(1935년=100; 1970년=100)



자료: 본 논문의 DB; Maddison (1995); 일본통계청 (<http://www.stat.go.jp/data/chouki>).

한국의 수출 물량지수는 세계는 물론, 무역의 성장이 빨랐던 일본에 비해서도 빠른 증가를 보였다. 단, 개항기의 물량지수는 그 시기에 점차 감소한 것으로 추측되는 육로 무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가율이 다소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기인 20세기 전반에는 대공황의 영향으로 세계무역이 거의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한국의 수출 물량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각국이 아우타르키 정책을 추구하면서 세계무역이 위축되는 가운데서도 엔 블록 내에서의 무역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杉原薰, 1996). 해방 직후인 1940년대 후반에 물량지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무역이 급격히 붕괴한 상태에서 미미한 수출 증가로도 물량지수가 급증할 수 있는 基底效果일 뿐이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은 크지 않았으며 1950년대에도 무역은 여전히 정체하고 있었다.

39) 증가율 계산에 이용한 각 기간의 시점과 종점의 물량지수는 3개년 평균이다.

그러나 1960년대의 고도성장기에 들어서면서 수출 물량지수는 다시 급증하였다. 해방 직후 십 수년의 예외적인 시기를 제외한 지난 130년 동안에 무역이 이처럼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림 5〉는 수출입 단가지수로부터 계산한 순 상품교역조건과 거기에 수출 물량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소득교역조건의 장기 추이이다. 이 그림에서도 유의할 것은 1946~54년의 경우 순 상품교역조건의 산출에 이용된 단가가 원화 기준이어서 그 전후 시기와 단절이 있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해 두었다는 점이다. 만약 수입과 수출 단가에 동일한 환율이 적용되었다면 달러 기준으로 산출된 교역조건과 비교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전술했듯이 복수환율제가 시행되고 있어 수입과 수출의 각 품목에 적용되는 환율이 다른 경우가 많아 원화 기준으로 산출된 교역조건은 달러 기준의 다른 연도와 비교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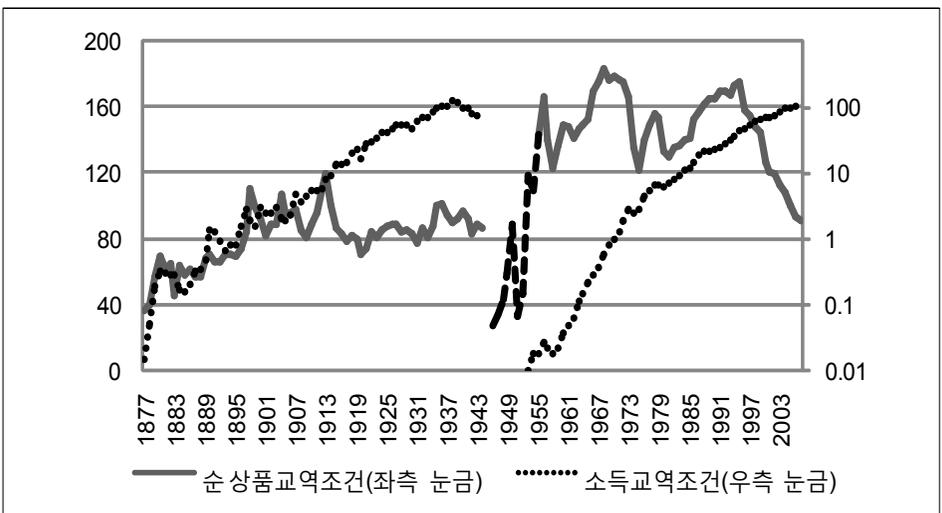
먼저, 순 상품교역조건은 개항기에 수출 단가지수의 상승으로 인해 대체로 크게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포함된 1913~20년에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이후 1920년부터는 추세적으로 개선되었다. 해방 후 약 10년간은 순 상품교역조건이 급속히 개선된 시기였다. 물론 이것은 원화 기준의 단가지수로부터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추이와 연속선 상에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순 상품교역조건은 1960년대에도 계속 개선되다가 1973년과 1979년의 오일쇼크로 인해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후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엽까지 국제 유가의 안정과 수출 상품구조의 고도화 등에 의해 개선되었다. 그 후 다시 국제 유가가 상승으로 반전되고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기의 수출단가가 하락하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윤성훈, 2006).

순 상품교역조건의 추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읽을 수 있다. 첫째는 예외적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대전기를 제외하면, 1차 산품 수출에 주로 의존하고 있던 시기에 교역조건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⁴⁰⁾ 둘째는 순 상품교역조건의 변동이 심했으며, 이는 적어도 식민지기 초까지는 수출 단가지수의 변동에 기인한 것

40) 프레비시-싱어(Prebisch-Singer)의 교역조건 악화 가설에 의하면, 1차 산품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낮아 수요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며 따라서 1차 산품 수출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교역조건이 악화보다는 Blattman, Hwang and Williamson(2004)과 Williamson(2004)이 지적한 교역조건 변동성(volatility)이 미친 영향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었다는 점이다.⁴¹⁾ 이 두 가지 특징은 주요 수입품인 생금건과 수출품인 쌀과 대두의 단가를 비교해 보면 쉽게 확인된다. 생금건의 단가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반면 농산물인 쌀과 대두의 단가는 등락이 심하였으며,⁴²⁾ 전자에 비해 후자가 더 빨리 상승하였다. 대두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쌀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은 일본의 쌀 가격과 연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쌀 수출 단가의 등락은 일본을 포함한 쌀 농사의 풍흉과 같은 공급 측의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⁴³⁾

〈그림 5〉 상품 및 소득교역조건(1935년=100; 2005년=100)



자료: 본 논문의 DB;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순 상품교역조건에는 수출입의 가격 변동만을 나타내고 물량 변동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실질적인 무역의 이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득교역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순 상품교역조건에 수출 물량지수를 곱해서 구해진다. 이 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교역조건이란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의미

41) 교역조건 변동과 수출 단가지수의 변동을 비교한 결과, 1910년대 중엽까지 양자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1881~1905년에 단가의 변이계수를 구해 보면, 생금건이 0.19임에 비해 쌀 0.37, 대두 0.36로, 쌀과 대두의 가격 변동이 심했음을 알 수 있다.
 43) 일본의 쌀 생산량 연간 변동률(梅村又次 外, 1966)과 조선 쌀의 수출 단가지수 연간 변동률 사이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수준에서 -0.43으로 나타났다. 물론 조선의 풍흉에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개항기는 쌀 생산량 통계가 없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다. 예컨대 수출품 가격의 상대적 하락은 순 상품교역조건을 불리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 수출 물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데, 만약 전자에 비해 후자의 효과가 크다면 순 상품교역조건이 불리해지더라도 소득교역조건은 개선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순 상품교역조건이 불리하게 바뀐 시기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시기에 소득교역조건은 유리하게 추이하였다.⁴⁴⁾

IV. 맺음말

본 논문에서 필자들은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작성기관 및 작성방식이 서로 다른 자료를 일관성 있게 연결함으로써 1876년 이후 1963년까지의 장기무역통계 DB를 구축하고 그에 기초하여 무역구성 및 무역지수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머리말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에서 각 시기별로 무역의 특징을 비교해 보고, 그 차이가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개항기의 수출(수입) 물량지수 증가율(1880-1910년)은 연평균 9.2% (13.5%)로 높았다. 무역의 품목 구성은 매우 단순하여 쌀과 대두 및 우피를 주로 수출하고 면직물을 수입하는 유형이 지속되었다. 농산물을 수출하여 공산품을 수입하는 후진국에 전형적인 무역 유형이었으며, 이 시기를 통해 공산품의 수출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시기 교역조건은 농산물의 풍흉에 따라 변동이 심했지만 조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개항기에는 무역 이외에는 의거할 만한 경제통계가 없어 이러한 개방의 충격이 당시의 경제를 어떻게 변모시켰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농산물의 상품화가 진전되는 반면 전통적 가내 직물생산이 위축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식민지 초기(1911-13년)의 무역의존도(=19.2%)⁴⁵⁾를 개항기에 도달한 수준으로 보고 개항 초기를 0%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무역의존도가 그만큼 상승한 셈이다.

식민지기의 수출(수입)의 증가율(1910-40년)은 연평균 10.1% (8.6%)였다. 무역의 품목 구성을 보면 쌀의 증산과 수출이 정책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개항기와 유사

44) 예외적으로 1940년대에는 소득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 이는 순 상품교역조건이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전시통제 등으로 인해 수출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45) 무역의존도는 (수출+수입)/국민총소득(GNI)으로 정의되며, 여기서 인용된 통계는 김낙년(2009)의 부표 3에서 가져왔다.

한 구성이 1920년대까지 이어졌지만, 1930년대 이후에는 공산품의 수출 비중이 뚜렷이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수입에서도 그에 대응하여 기계류 등의 구성비가 높아졌다. 즉 공업화의 진전과 같은 생산부문의 변화가 무역구성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1938-40년에 64.8%로 상승하여 식민지 초기에 비해 훨씬 더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로 변모했다. 개항기에 나타난 변화가 전통적인 폐쇄경제가 시장개방이라는 충격에 노출된 결과라고 한다면, 식민지기는 거기에 각종 제도적 변화(예컨대 통화의 통합과 일본 법제도의 이식)에 의한 충격이 더해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 과정이 정치적으로는 주권을 상실하는 과정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마치 EU와 같은 경제통합이 이 지역에서 강제적으로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무역의 급속한 성장이나 그 구성의 다양화, 그리고 그것을 규정했던 공업화는 이러한 제도적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중일전쟁 이후 경제통제가 강화되자 무역이 감소하고 소득교역조건도 악화로 돌아섰다.

해방 후 1960년대 초의 기간은 무역이 거의 붕괴되었지만, 그로부터의 회복도 느리게 진행된 시기였다. 무역의존도는 1953-63년에는 15.8%(그 중 수출과 수입 의존도는 각각 3.7%와 12.1%)였다. 이 중 수입의존도의 상당 부분은 원조에 의한 수입인데 이를 제외하고 보면 무역의존도는 더욱 낮아진다. 해방 후 1950년대는 물론 1960년대 초까지도 식민지기 초(또는 개항기 말)의 수준을 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출품도 중석이나 어개류와 같은 1차 산품이 고작이었고, 1950년대 말에 섬유제품이 수출되기 시작했지만 미미한 규모에 그쳤다. 이와 같은 무역의 위축은 해방과 함께 식민지까지 포괄하는 일본제국의 지역통합 경제가 붕괴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무역의 회복이 늦었던 것은 그 후 수입대체 공업화를 지향한 보호주의 정책 때문이라 생각된다. 1953-63년간의 평균 관세율(=관세/수입액)은 수입액에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원조를 제외하고 보면 42.9%에 달했다. 이승만 정부가 외환을 규제하고, 공정환율을 낮게 억제(즉 원화를 과대평가)한 것도 무역의 성장에 장애가 되었다.

1960년대 중엽 이후는 무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수출(수입)의 연평균 증가율(1965-95년)은 19.0%(15.6%)로 가장 높았다. 무역의존도는 1970년대 중엽에 66.5%로 식민지기에 도달한 수준을 회복했고, 최근에는 89.2%로 높아졌다. 무역구성도 크게 변했다. 이전에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1차 산품이 사라진 대신, 공업제품(처음은 경공업 제품, 나중에는 중화학공업 제품)이 수출을 주도했고

품목구성도 매우 다양화되었다. 1960년대 중엽 이후 수출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는데, 그 배경으로는 1960년대 전반에 이루어진 환율 현실화와 이후의 외환 및 수입에 대한 규제 완화, 수출에 대한 지원 정책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1965~95년 간의 평균 관세율을 구해보면 6.9%로 나온다. 1950년대와 비교해서 시장개방이 크게 진전되었으며 해방 전의 수준(개항기 5%, 식민지 초기 6.1%, 대일 관세가 철폐된 1922년 이후 2.3%)에 접근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개항 이후를 네 시기로 나눌 경우 그 중에서 해방 후 1960년대 초가 개방체제로부터 가장 후퇴한 시기였는데, 그것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개방체제 중에서 개항기의 무역성장은 공업화를 수반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개방의 충격만으로는 공업화가 달성되기 어려우며 근대적 제도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기의 경제는 지역통합으로까지 나아갔지만 정치적 모순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체제가 아니었다. 1960년대 중엽 이후의 개방체제가 무역의 성장을 장기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前史에 비추어 상대화해 봄으로써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본 논문의 DB 작성을 위해 이용한 자료는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외에 DB 작성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는 각주 등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생략함.

- 堀和生·김낙년·박기주, “무역과 대외수지,” 김낙년 편,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6.
(Translated in English) Hori, K., N. N. Kim and K-J. Park, “Foreign Trade and Balance of Payments,” in N. N. Kim ed., *Economic Growth in Korea 1910-1945*, Seoul: Seoul Nat'l Univ. Press, 2006.
- 김낙년, “조선무역의 장기동향,” 안병직 편, 『韓國經濟成長史』,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1.
(Translated in English) Kim, Nak Nyeon, “Long Term Trends of Foreign Trade of Korea,” in B. J. Ahn ed., *Economic Growth in Korea: Preliminary Approach*, Seoul: Seoul Nat'l Univ. Press, 2001.

3. 김낙년, “한국의 국민계정, 1911-2007: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경제분석』, 15-2, 2009, pp. 55-95.
(Translated in English) Kim, Nak Nyeon, “National Accounts of Korea, 1911-2007: Term Series of Principal Indicators,” *Economic Analysis*, 15-2, 2009, pp. 55-95.
4. 박기주, “한국무역의 태동기: 원조와 관리무역의 시기(1945-1963),” 『한국무역사』, 서울: 한국무역협회, 2006.
(Translated in English) Park, Ki-Joo, “Korean Trade after Liberation: The Period of Foreign Aid and Controlled Trade, 1945-1963,” in *History of Korean Trade*, Seoul: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06.
5. 윤성훈, “국제수지 추이와 교역조건,” 『한국무역사』, 서울: 한국무역협회, 2006.
(Translated in English) Yoon, Sung Hoon, “Trend of Balance of Payments and Terms of Trade,” in *History of Korean Trade*, Seoul: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06.
6. 최유길, “李朝 開港直後の 韓日貿易의 동향,” 『아세아연구』, 47, 1972, pp.1-47.
(Translated in English) Choi, Yoo Kil, “Trend of Korean Trade with Japan after Opening Port,” *Journal of Asiatic Studies*, 47, 1972, pp.1-47.
7. 한국은행, 『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 서울: 한국은행, 2004.
(Translated in English) Bank of Korea, *Explanation for Understanding Economic Indicators*, Seoul: Bank of Korea, 2004.
8. 姜德相, “李氏朝鮮開港直後に於ける朝日貿易の展開,” 『歷史學研究』, 265, 1962, pp.1-18.
(Translated in English) Kang, Duk Sang, “Korean Trade with Japan after Opening Port,” *Rekishigakukenkkyu*, 265, pp.1-18.
9. 溝口敏行·梅村又次 편, 『舊日本植民地經濟統計:推計と分析』,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88.
(Translated in English) Mizoguchi, T. and M. Umemura ed., *Basic Economic Statistics of Former Japanese Colonies 1895-1938: Estimates and Findings*, Tokyo: Toyo Keizai Shinposha, 1988.
10. 杉原薫, 『아시아간 무역의 형성과 구조』, 1996, 박기주·안병직 역, 서울: 전통과 현대, 2002.
(Translated in English) Sugihara, Kaoru, *Formation and Structure of Intra-Asian Trade*, 1996, Korean Translation by K-J. Park and B.J. Ahn, Seoul: Jontong gua Hyundae, 2002.
11. 崔柳吉, “韓國の貿易動向 1877-1911年-輸出入物價指數の推計を中心に,” 『アジア經濟』, 15-1, 1974, pp.70-87.
(Translated in English) Choi, Yoo Kil, “Foreign Trade of Korea 1877-1911: Estimates of Price Index,” *Asian Economies*, 15-1, 1974, pp.70-87.
12. 梅村又次 外, 『長期經濟統計 農林業』,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66.
(Translated in English) Umemura, M., *Estimates of Long-Term Economic Statistics of Japan since 1868: Agriculture and Forestry*, Tokyo: Toyo Keizai Shinposha, 1966.
13. 野田容助 編, 『東アジア諸國地域の貿易指數-作成から應用までの基礎的課題』, 東

京: アジア經濟研究所, 2005.

(Translated in English) Noda, Yosuke ed., *Trade Indices in East Asian Countries and Regions: Basic Subjects from Compilation to Application*, Tokyo: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2005.

14. 堀和生・木越義則, “開港期朝鮮貿易統計の基礎的研究,” 낙성대경제연구소 Working Paper 2009-04, 2009.
(Translated in English) Hori, K. and Y. Kikoshi, “Preliminary Study on the Statistics of Korean Foreign Trade in the Opening-Port Period,” Naksungdae Institute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2009-04, 2009.
15. Blattman, C., J. Hwang and J.G. Williamson, “The Impact of the Terms of Trade on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eriphery, 1870-1939: Volatility and Secular Change,” NBER Working Paper 10600, 2004.
16. Maddison, A., *Monitoring the World Economy 1820-1992*, OECD, 1995.
17. Williamson, J.G., “De-Industrialization and Underdevelopment: A Comparative Assessment Around the Periphery 1750-1939,” Paper prepared for the Harvard Economic History Workshop, December 17 2004, mimeo.
18. <http://comtrade.un.org/>
19. <http://ecos.bok.or.kr/>
20. <http://www.naksung.re.kr/>
21. <http://www.stat.go.jp/data/>

〈부표 1〉 추정 무역액

(단위: 천 원)

연도	개항기				연도	식민지기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원통계	추정치	원통계	추정치		원통계	추정치	원통계	추정치
1885	388	439	1,672	1,443	1910	18,868	20,731	39,737	47,259
1886	504	569	2,474	2,178	1911	17,820	18,939	54,083	62,335
1887	805	910	2,815	2,429	1912	20,253	22,137	67,095	73,800
1888	867	980	3,046	2,629	1913	29,883	30,792	71,537	76,235
1889	1,234	1,394	3,378	2,943	1914	33,202	34,017	63,088	65,711
1890	3,550	4,013	4,728	4,092	1915	48,060	50,253	59,160	62,865
1891	3,366	3,804	5,256	4,543	1916	54,855	55,087	74,366	80,608
1892	2,444	2,762	4,598	3,989	1917	80,434	80,778	102,837	111,862
1893	1,698	1,920	3,880	3,364	1918	149,082	154,857	158,253	167,735
1894	2,311	2,612	5,834	5,093	1919	213,625	217,288	280,601	286,140
1895	2,482	2,805	8,080	6,955	1920	179,749	171,072	238,701	238,784
1896	4,729	5,333	6,539	5,665	1921	213,577	190,853	230,760	213,471
1897	8,974	10,112	10,068	8,737	1922	214,559	190,653	255,312	228,743
1898	5,709	6,404	11,815	10,300	1923	258,013	233,389	265,033	231,760
1899	4,998	5,625	10,227	8,902	1924	327,369	317,804	308,842	298,784
1900	9,440	10,580	10,940	9,534	1925	339,194	328,023	339,056	327,317
1901	8,462	9,526	14,777	12,894	1926	360,416	342,881	371,257	353,007
1902	8,317	9,337	13,693	11,978	1927	355,595	349,008	382,445	375,280
1903	9,478	10,649	18,411	16,174	1928	363,280	354,524	413,002	403,989
1904	6,934	7,780	27,403	24,089	1929	342,745	315,877	421,930	394,819
1905	6,904	7,721	32,972	28,835	1930	265,279	238,423	366,064	338,969
1906	8,133	9,181	30,305	26,588	1931	261,396	241,331	269,148	248,893
1907	16,480	18,557	41,612	36,542	1932	310,054	292,460	318,955	301,203
1908	13,464	13,464	41,021	41,021	1933	367,829	334,869	401,936	368,787
1909	15,400	15,400	36,646	36,646	1934	464,229	436,497	516,729	488,805
1910	18,868	18,868	39,737	39,737	1935	549,063	498,291	656,868	605,866
					1936	591,258	539,520	760,324	708,351
					1937	679,842	606,716	859,327	785,953
					1938	877,394	785,069	1,052,917	960,261
					1939	1,003,454	835,222	1,383,924	1,215,339
					1940	943,025	868,289	1,533,774	1,458,704
					1941	969,490	920,750	1,517,198	1,468,337
					1942	944,722	886,963	1,491,155	1,457,810
					1943	914,469	835,492	1,347,675	1,305,914

주 : 1)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수출입을 제외하였으며, 수출입은 이출입을 포함한 것임.
 2) 1877~1910년의 추계액은 원통계로부터 FOB(수출)와 CIF(수입)를 추계한 것이며, 1910~43년의 추계액은 원통계에 과소신고액을 더하고 비무역품과 증계무역을 뺀 것임. 추계방식의 차이로 인해 1910년의 양 추계액은 일치하지 않음.

자료: 본 논문의 DB; 堀和生·김낙년·박기주(2006) 堀和生·木越義則(2009)

〈부표 2〉 무역지수

	수출단가지수	수출물량지수	수입단가지수	수입물량지수	순 상품교역조건	소득교역조건
1877	24.78	0.04	67.08	0.03	36.94	0.02
1880	32.34	0.48	46.34	0.22	69.79	0.33
1885	25.35	0.28	43.26	0.59	58.59	0.16
1890	33.51	1.93	47.46	1.52	70.61	1.36
1895	38.29	1.18	54.73	2.25	69.96	0.83
1900	53.04	3.24	57.49	2.90	92.27	2.99
1905	60.81	2.07	63.55	7.90	95.68	1.98
1910	54.54	6.30	61.23	9.88	89.08	5.61
1915	55.03	15.91	63.26	14.24	86.98	13.84
1920	137.32	23.84	192.36	18.89	71.38	17.02
1925	133.51	46.27	151.49	34.07	88.13	40.78
1930	82.80	58.35	99.93	55.77	82.86	48.35
193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940	176.77	97.16	181.62	128.56	97.33	94.57
1944	204.41	81.94	235.97	61.67	86.62	70.98
1946	0.49	0.00	1.79	0.00	27.33	0.00
1950	4.71	0.01	5.30	0.00	88.82	0.01
1955	50.94	0.01	35.35	0.37	144.10	0.02
1960	45.32	0.03	30.25	0.43	149.82	0.04
1965	46.96	0.15	30.84	0.58	152.25	0.22
1970	54.83	0.58	30.75	2.49	178.31	1.03
1975	81.32	2.33	66.44	4.20	122.41	2.85
1980	137.33	4.75	103.33	8.30	132.90	6.31
1985	131.17	8.60	93.18	12.85	140.77	12.11
1990	170.80	13.80	103.40	25.90	165.18	22.80
1995	174.50	25.90	99.50	52.60	175.38	45.42
2000	107.80	56.10	85.20	71.40	126.53	70.98
200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07	103.80	125.00	114.00	120.50	91.05	113.82

- 주 : 1) 해방 전은 1935년=100, 해방 후는 2005년=100으로 한 지수임.
 2) 1963년 이후의 단가지수는 한국은행이 작성한 것을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3) 1946~54년의 이탤릭체 부분은 본문 서술 참조.
 4) 매년의 수치는 낙성대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naksung.re.kr/wp2009-3.pdf>) 부표 참조.

자료: 본 논문의 DB; UN의 Comtrade DB;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 연판.

Long-term Trade Statistics and Indices in Korea, 1877-1963

Ki-Joo Park* · Nak Nyeon Kim**

Abstract

This paper is purposed to build up the foreign trade statistics DB(Data-base) of Korea from 1877 to 1963 and estimate the long-term trend of foreign trade. Major work for this was to utilize new sources, to combine various trade statistics which were differently formatted according to producers, and to assign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code to each item. This elaboration allowed us to link our data with UN Comtrade DB, which result in a consistent series from 1877 to 2006. We also computed the chained Fischer unit price index, the quantity index of trade and the terms of trade, which were linked up with indices exhibited by the BOK(Bank of Korea). We divided the 130-year period since the opening of the port into four, which are the open-port period, the colonial period, from the liberation to the early 1960s and after the mid-1960s, showed how the composition of trade and the various indices changed over time and tried to explain their differences in each period. The high growth of trade was characterizing all period, except the third period when the openness was shrinking. Even though the net barter terms of trade was sometimes improved or deteriorated, the income terms of trade was improved constantly all the time due to the fast increasing quantity of export.

Key Words: trade statistics, composition of trade, unit price index of trade, terms of trade

Received: April 24, 2009. Revised: July 28, 2009. Accepted: Sep. 18, 2009.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49-1, Dongseon-dong 3-ga, Seongbuk-gu, Seoul 136-742, Korea, Phone: +82-2-920-7742, e-mail: kjpark@sungshin.ac.kr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Dongguk University, 26, Pil-dong 3-ga, Jung-gu, Seoul 100-715, Korea, Phone: +82-2-2260-3273, e-mail: nnkim@dongguk.edu